

장학생 선발 조건이 '금연'?

— 비트컴퓨터의 사회공헌 활동 —

“장학생 선발 조건을 상세히 알고 싶는데요.”

“금연을 약속하면 됩니다.”

“네? 다른 선발 조건은 없습니까?”

장학생을 선발하는 시점이면 늘 듣게 되는 질문이다.

조현정 재단의 장학생 선발 조건은 어려운 생활환경과 우수한 성적이 아니다. 금연 약속이 선발 제기준이다. 조현정 재단이 이러한 선발 조건을 내세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세운 순수한 자기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조현정 회장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 시기의 인격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가르치겠다는 조현정 회장의 의지다.

조현정 재단의 장학생은 금연을 약속하고, 최소한 이것부터 지켜내려는 의지를 가진 학생이면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선발되기만 하면 반드시 청소년들이 금연의 약속을 지키게끔 이끌어가겠다는 재단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물론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생활환경과 성적 등을 고려해 추천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는 조현정 회장이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겸임하면서 부모님의 벤처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수혜의 폭을 넓혀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이 2000년 1월 사재를 출연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조현정 재단은 단순히 학비만을 지원하는 곳은 아니다. ‘사람을 키우는 재단’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크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매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2학년까지 4년간 지원을 한다. 조 회장은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라면서 “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해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얼마 전 8기 장학생을 선발한 조현정 재단은 이사장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동기 부여, 선후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사회

엘리트로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장학생 전체 모임을 열고 있다. 올해도 1기부터 8기까지 142명의 장학생들이 참석해 새로이 선발된 후배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파워 네트워크를 자랑했다.

조현정 재단은 장학사업 외에도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매경비트학술상’을 만들어 해마다 세

명의 교수에게 학술비를 지급하고, 비트컴퓨터의 주력 사업 분야와 관련된 의료정보학회에 매년 ‘비트학술상’을 통해 학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관리는 모두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관리비 지출 없이 재단의 수익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의 100%를 관련 사회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통해 2000년 설립부터 지난해까지 장학금 7억여 원과 학술비 1억 8천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조현정 재단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과는 별개로 국제정보봉사단 활동, NGO 지원 활동, 비트정보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만이 가진 정보에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정보’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IT 업계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